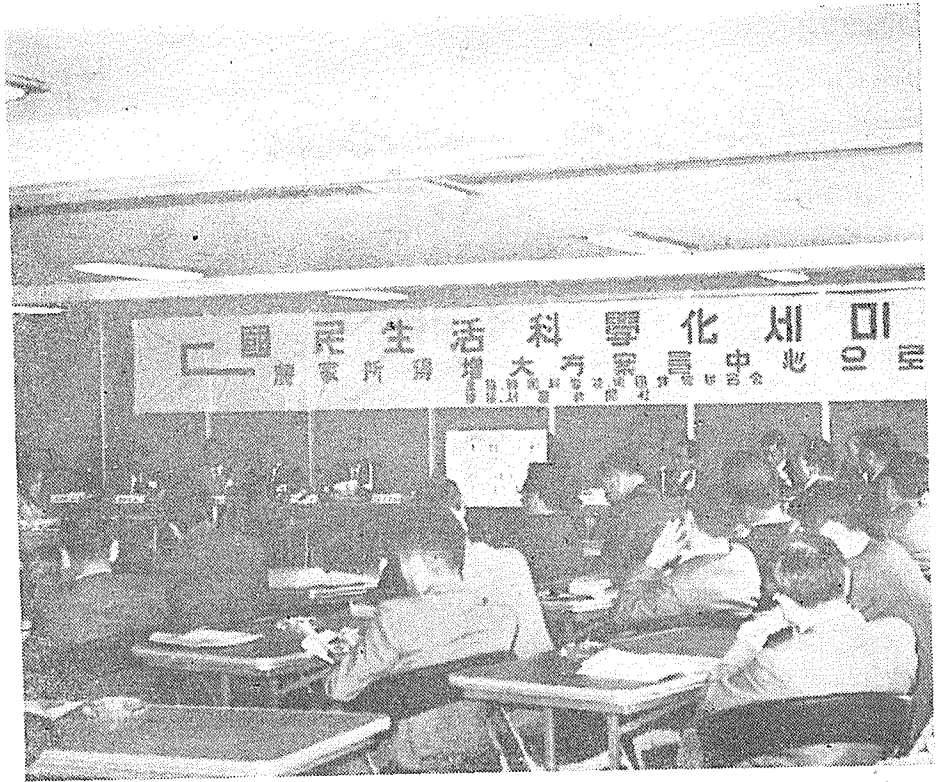


— 特 히 所得 增大 에 置 重 한 —

# 農村의 近代化 方案



農家所得增大方案을 中心으로 한 國民生活科學化 세미나가 지난 5월 3, 4일 兩日間 大韓貿易振興公社 輸出情報센터會議室 (韓國日報社 8層)에서 열렸다.

80年代 輸出 100億弗, 國民所得 1000弗을 向해 全國民의 科學化 運動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는 이즈음 농촌의 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方案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韓國育種學會 會長 玄信圭 教授를 비롯, 14個 學會의 各教授들을 모시고 「韓國農村의 近代化 方案」을 펼쳐보는 한편 일본 近畿大學의 池上隆雄 教授 等 2人을 招聘하여 그들의 意見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玄信圭 博士는 農村의 近代化가 빨리 成就되느냐 못하느냐는 自然資源이 不足해서라기 보다는 開發의 主體인 指導者와 住民의 科學的인 思考方式과 開發意慾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농촌의 革新的 開發을 하루속히 成就하기 爲하여 農村指導者의 育成과 아울러 各種 開發要因을 合理的으로 投入하는 政府活動을, 強化하는 同時에 農民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農民自身이 보다 積極적인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兩日間 세미나 중 첫째날 (5월 3일)은 主로 農村을, 둘째날 (5월 4일)은 全國民을 對象으로 하여 生活科學化를 모색하였는데 本誌에서는 우선 「韓國農村의 近代化 方案」에 관한 원고만을 받게 수록 하기로 한다.